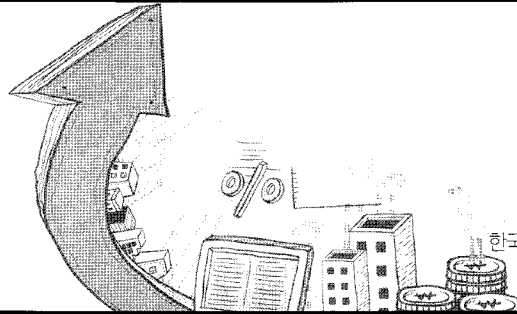


# 2011년 오리산업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팀 경준형 연구원

다사다난했던 201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 새해에는 오리산업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2010년 한해는 오리산업에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도 큰 성장세를 보였다. 과연 새해에도 큰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2010년도의 오리산업에 대해 살펴보고, 그 연장선 상에서 2011년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오리 사육 동향 및 전망

오리산업의 성장속도를 살펴보려면, 우선 사육동향을 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에는 사육마리수가 연평균 34% 증가했으며, 2000년대는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11% 대의 증가율을 유지해 왔다. 2000년대(2000년부터 2009년)에도 연평균 10.6%의 성장률을 보였다. 2010년에는 90년대의 성장률인 전년대비 33.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사육마리수가 증가한 것은 종오리수가 증가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10월 이후 체리벨리 종 오리 수입이 전면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종

오리 수입은 전년대비 53.8%나 증가한 41만 7천 마리였다. 7월부터 F1을 통한 부화가 금지되어 F1 마리수가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종오리 마리수는 30%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병아리 생산도 전년대비 37.5%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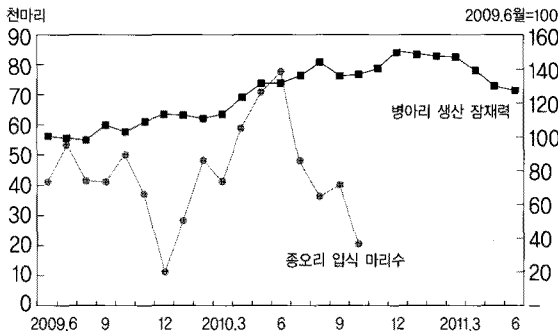
신란오리 사료 생산량이 전년대비 43.9% 증가하였고, 총 오리배합사료가 3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 오리산업의 양적인 성장이 대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리 사육규모의 증가는 바로 공급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0년 1~11월 도입마리수는 6천 4백만 마리로 전년 동기기간보다 37.3% 증가하여, 지육기준으로 약 8만 6천 톤의 오리고기가 생산되었다.

이러한 생산 급증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소비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 오리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렇지만, 참살이(well-being)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몸에 좋다는 오리고기의 소비는 가파른 증가세를 타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패턴의 변화 또한 오리고기 소비의 증가를 가속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변화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다.

2011년 새해에도 오리 사육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종오리 수입이 74만 7천 마리로 2010년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오리(PS) 수입 증가로 2011년 F1은 더욱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협회 등 지도층의 꾸준한 노력으로, 병아리 품질, 질병, 사료효율, 생육 등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오리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F1 근절이라는 목표가 2011년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오리 입식 마리수와 병아리 생산 잠재력】



주 :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 한국오리협회.

## 이상기온과 질병에 대한 우려

하지만 오리 사육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와 질병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더위에 약한 오리의 특성상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병아리 생산잠재력을 볼 때 10월 이후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되어 일시적으로 긴장도 하였지만, 여름철 무더위와 질병 등의 영향으로 산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폐사율

이 증가하여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빚었다.

이러한 피해는 비단 오리산업 뿐 아니라, 전 축종 나아가 농산물에서 발생했다. 배추파동으로 대표되는 이상기온의 피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11년에도 이상기온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낙후된 시설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상기온과 함께 우려되는 점은 바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질병이다. 2010년에도 수차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철새 등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되었다.

구제역으로 전국의 축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지금 AI는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지자체와 계열업체, 농가의 노력으로 방역상태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리산업은 최근 급격한 양적 성장을 보인 만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그 피해도 매우 클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항시 철저한 방역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 증가와 소비패턴 변화

2010년 국내 오리고기 소비는 생산이 미처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조사결과 오리소비의 급증은 보양식 및 저지방 선호라는 건강상의 이유가 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이와 함께 건강을 중시하는 참살이(well-being)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소비자가 오리고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선호하는 오리요리와 소비패턴의 변화도 오리고기 소비 증가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주로 구이 및 탕의 용도로 소비되었지만, 최근 들어 훈제요리가 인기를 얻고 있다. 훈제오리는 가정 내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요리과정을 거쳐야 하는 다른 음식에 비해 경쟁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훈제요리는 전문점 위주의 소비패턴에서 가정 내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오리전문점의 판매비율은 낮아지고 대형할인마트, 홈쇼핑 등의 판매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급식 및 군납의 증가도 오리소비 증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2011년에도 오리고기에 대한 홍보와 새로운 가공품 등의 개발로 오리고기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할인마트, 홈쇼핑, 인터넷판매, 급식 등의 비중이 커다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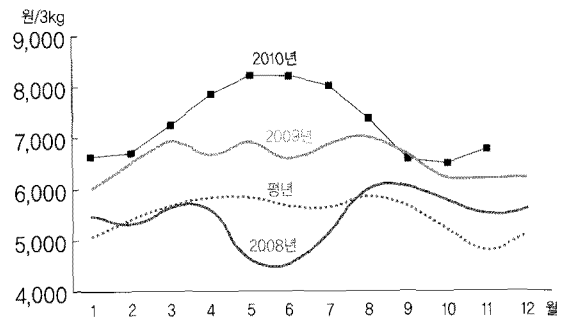
## 오리가격 상승세

앞서 짚어본 바와 같이, 2010년에는 오리 사육마리수 증가로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오리가격은 연초부터 강세를 보여, 오리 평균 산지가격은 2009년(6,552원)보다 10.7% 상승한 7,254원/3kg이었다. 물론 가격 상승 요인에 소비증가 이외에도 병아리와 사료비가 인상에 의한 생산원가 상승이라는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2010년 2분기에는 공급부족 심화로 오리 산지가격이 2009년 동기(6,040원)보다 33.7% 상승한 8,078원/3kg을 보이기도 하였다.

10월 이후 생산성 저하로 인하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2011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05~09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한국오리협회

